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 공급망 안정 및 현지 진출기업 지원 강화

- 베트남 수출통제 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한국의 선진 시스템 전파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11(금) 서울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함께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대화는 양국 수출통제 당국 간 정례적인 국장급 협력 채널을 최초로 가동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10월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해 6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의 주요 공급망 파트너인 베트남에는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현지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대응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베트남 수출통제 당국과 지난 4월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례 협의회 신설 및 정보공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베트남 수출통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대화는 이에 따른 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금번 대화는 산업부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응우옌 아잉 선 대외무역국장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진행되며, 수출통제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양국의 관심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측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수출통제 제도 운영 경험과 관련 노하우를 베트남 측에 공유하는 한편,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화는 베트남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방한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최된다. 베트남 대표단은 9월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나흘간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인천세관 및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우수기업인 삼성전자 등 국내 현장을 방문한다.

산업부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베트남은 우리의 핵심 공급망 파트너인 만큼,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해 첨단산업 생태계 안정성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선진 수출통제 역량을 공유하고 맞춤형 현지 지원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 변화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4830)
		담당자	서기관	김지연 (044-203-4832)



참고

제1차 한-베트남 수출통제대화 개최계획(안)

□ 개 요

- (일시) '26.9.11일(금) 14:00 ~ 15:00
- (장소) 무역안보관리원 컨퍼런스룸B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16층)

□ 참 석

- (韓) 산업통상부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 등
- (베) 산업무역부 Nguyen Anh Son 대외무역국장 등

□ 세부일정(안) ※ 순차통역으로 진행

일시	주요 의제	비고
14:00-14:10	• 모두 발언	
14:10-14:50	• 최근 수출통제 제도 업데이트 • 양국 관심사항 논의	
14:50-15:00	• 마무리	